

기획



인권도시 광주 이렇게 만들자

시민들의 인권 지식·의식수준 <5>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발표한 '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광주시를 중심으로)'를 보면 광주 시민의 38%만이 '한국사회의 인권현황'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인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주체인 지역민들의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의식수준이다.



광주삼각초등학교 학생들이 5·18 유적지를 방문하는 등 현장중심의 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시민 10명 중 6명 '한국 인권현황' 원지 모른다

◇광주시민들이 생각하는 한국사회의 인권현황= '한국사회의 인권현황 인지 정도'를 묻는 질문에 광주시민들은 어떻게 답했을까?

정규직 문제라고 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여성들보다 한국사회의 인권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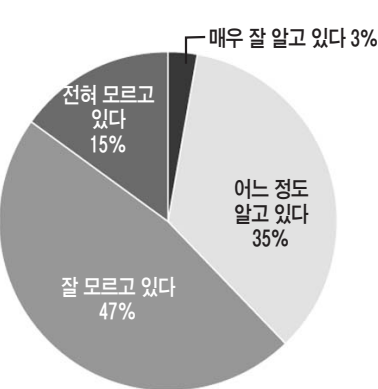
특히 20~40대 계층과 월 소득 300만원 이상 집단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사무·경영 집단에서는 인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지만 농수산·생산직 집단에서는 한국에서의 인권존중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의 인권상황=광주시민 25%는 '광주가 다른 지역사회와 비교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고 답한 반면 19%는 '그렇지 않다', 55%는 '보통이다'고 답해 광주가 인권에 대해 관심이 높은 지역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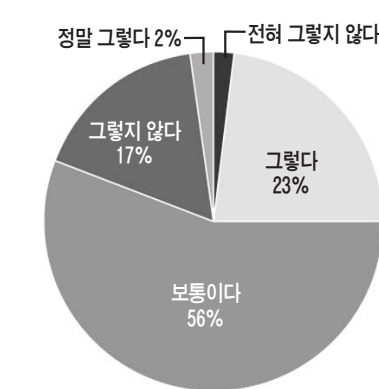
하지만 광주를 인권도시라고 하는 데는 53%의 시민들이 찬성했고, 반대는 4%에 불과했다. 또 인권친화적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해야 할 일로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제도 기반 구축과 생명권 존중 등 자유권 보장 강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광주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광주를 인권도시라고 하는데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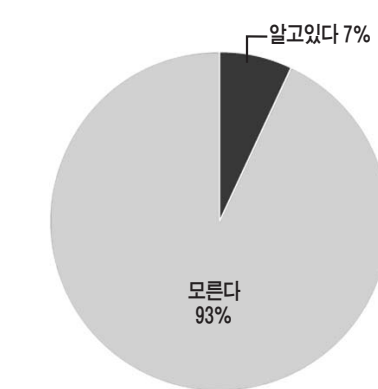
한국사회 인권현황에 대한 인지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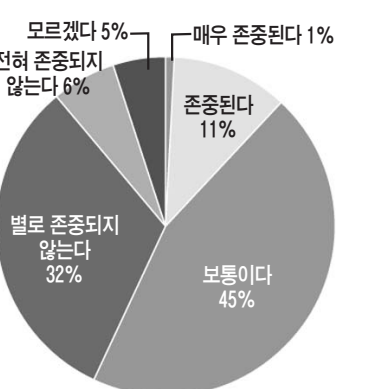
타 지역과 비교한 광주의 인권에 대한 관심도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한 곳 인지여부



한국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지역사회 인권문제 발생해도 93%가 모른다... 대다수 시민 관심 부족

성별·연령·직업·소득 따라 의식수준도 큰 차이... 차별화된 교육 필요

인권에 대해 관심이 높고, 광주를 인권도시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직업에서는 관매·자영업, 사무·경영, 주부, 학생 등이 광주가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더 높다고 평가했고, 광주를 인권도시라고 하는데 찬성하는 비율은 남성, 50대, 사무·경영, 월 소득 300만원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심각하다'가 34.5%로 '심각하지 않다' 12%보다 3배가량 높게 나타났고, 광주의 인권상황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나아졌다' 18%, '나빠졌다' 5%로 조사돼 광주시민들은 광주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는 심각하고,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별 변화가 없거나 나아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 '모른다'는 응답은 93%를 차지하여 인권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현저히 높게 조사됐다. <인권도시 도약을 위한 대안>=광주시민들은 아직까지 인권도시 광주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지식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또 성별, 연령, 직업, 소득 등에 따라 인권현황이나 의식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차별화된 인권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이경장 소장은 "인권에 대한 역사나 개념 등 이론적 지식보다 실제 현장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침해받았을 때 구제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실습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권체감형, 찾아가는 인권교육, 지역단위 인권 실천사례발표 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방수' (waterproofing) services. Includes text: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and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현대공인중개사' (Modern Public Real Estate Broker). Lists services like '다외부동산 재테크컨설팅', '가은 부동산', and '대인동삼일부동산' with various property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